전기화학에너지시스템

| [메인 문서](https://docs.google.com/document/u/0/d/1F0OwcWBFX517r8jL3AMEKxwHbz69J6QT-eIlSF7itT8/edit)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및실험2](https://docs.google.com/document/u/0/d/185fKrLazfk5WbAJSBC2rKQeU9vPUw0x9fLA6bAcmFus/edit) | | > | 전기화학에너지시스템 | | > | 없음 | |

## 개요

전기화학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는 3학점 융합 EC과목이다.

## 정보

김건우 선생님이 담당하시며, 항상 EC로 열린다. 지정된 교재는 없지만 오승모 교수의 ‘전기화학’이라는 책을 강조하신다.

학기 초에는 전기 화학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5차시 정도 수업을 하신다. 중간고사 전후로 3~4인 팀을 구성하여, 선생님이 제시한 주제 중 하나를 골라서, 1~2교시 분량의 발표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EC 수업이기 때문에 발표와 보고서는 모두 영어로 해야한다. 조별 발표 이후 CV 등에 대해서 수업하시고, 기말고사 전에는 개인별로 전기화학과 관련된 논문 하나를 읽고 15분 정도 영어로 발표, 보고서를 작성한다.

## 과제

과제는 첫 5주 동안 전기화학 관련 단어나 개념을 제시하면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그러나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이외에 별 과제는 없다.

## 시험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조별 발표에서 핵심 내용이 출제된다. 조별 발표는 수강생 모두가 합심하여 각 팀의 내용을 요약해서 공유하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험문제는 대부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서 출제되고, 특히 첫 5차시에 배운 개념을 묻는 문제와 그것을 응용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

## 난이도

수강생의 거의 대부분이 화전이고, 과목명조차 전기’화학’에너지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는 상당히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운다. 그래서 화전들에게는 체감 난이도가 어느정도 있다. EC 수업이지만 한국어로 진행해서 언어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발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영어로 진행해야하는 것도 그렇지만, 논문/PPT를 읽고 분석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말고사의 난이도는 평소에 열심히 했거나, 벼락치기를 잘했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다.

## 팁

김건우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수업이다. 융통성 있게 체력을 보충하거나 머리를 식히거나 다른 과목에 집중하는 효율성을 보이자.

전기화학 관련 R&E를 하는 중이거나 한 사람에게는 정말 유익하다고 한다.

## 기타

융합과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연과목에 가깝다. 그러나 융합과목이라 학점은 매우 후하게 준다. 2020년도에는 수강생의 절반이 A+을 받아갔다고 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개꿀 날먹 과목이라고 소문나 있지만, 정말 개꿀 날먹 마인드로 수강했다가는 발표에 죽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